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6. 21.(금) 14:00 < 6.22.(토) 조간 > 배포 2024. 6. 21.(금)

국익 극대화 원칙하에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제도정비 및 투자유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6.21.(금) 서울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시추 계획, 제도 개선, 투자유치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모두발언에서 안덕근 장관은 가스전 개발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시추계획 관련, 현재 석유공사가 잠정적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한 상황으로, 향후 적정한 검토 절차를 거쳐 1차공 시추위치 등 세부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광제도 개선 관련,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체계로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조광권을 유망구조의 시추탐사와 개발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할하고, 조광료 부과 요율도 정부와 투자자간 적정 수익 분배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유치 관련, 석유공사는 심해 개발·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시추 1공당 1천억원 이상 소요되므로, 개발·운영에 필요한 기술력·재원 확보 및 위험분산 차원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하에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정학적 위험요인의 확산, 전세계 자원 무기화 추세 등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 심화에 따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원유와 천연가스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할 때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국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안덕근 장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이제는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각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재은 (044-203-5240)
		담당자	사무관	이재형 (044-203-524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